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끝없는 추락

(상) 어쩌다 이 지경까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V10'은 커녕 탈락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위부터 7위팀까지 그 어느해보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지만 KIA에게는 남의 일이 된 지 오래다. 흔히 야구를 멘탈(mental) 스포츠라고 부른다. 이는 정신력이 경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호랑이 군단은 승부 근성을 상실했다.



지난 2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IA-한화 경기에서 KIA가 크게 뒤지자 덕아웃에 있던 KIA 주전 선수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욕 상실·몸관리 엉망·기강 해이

물 먹은 '종이 호랑이'

선수들은 줄부상이고, 응병으로 데려오는 선수마다 시름시름 앓다 퇴출됐다.

모두가 일심단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코칭 스태프들의 불화설도 시즌내내 끊이지 않는다.

정재공 단장과 서정환 감독에 대한 불만도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일부 선수들은 팀은 끝까지지만 매주 일요일만 되면 연고지인 광주에서 술판을 벌여 팬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야구팬들은 한때 끝까지를 도맡아 하던 롯데를 '꼴대(꼴찌 롯데)'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올 시즌에는 KIA를 '꼴아'라고 놀려댄다. 속 타는 건 팬들과 성적에 따라 생사여부가 결정되는 감독 뿐인 듯 하다. 한때 한국시리즈 9번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올렸던 야구 명가 KIA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올 시즌 KIA의 부진 원인과 배경, 해결책 등을 세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승부 근성 상실한 호랑이 군단

요즘 KIA 코칭 스태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잦아졌다. 장마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며 투덜거린다. "비만오면 오늘 경기 취소될텐데..." 패배의식에 젖은 어느 KIA 코치의 바람이다.

한화전이 예고됐던 지난 21일 오전. 재활군과 육성군이 훈련중인 무등경기장을 찾았다가 선수들이 내뿜는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다. "오늘 류현진(한화) 선발이라며, 무조건 졌네(웃음), 비도 안 오겠는데." 다행히(?) 이날 오후부터 비가 쏟아져 경기는 취소됐다.

일요일이던 지난 17일 밤 KIA팬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팀이 이 모양인데 선수들이 술판이나 벌이고 있더라. 이런 것 기사로는 안 나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전화를 끊었다.

물어온 일요일인 24일 또 다시 걸려온 제보전화를 받고 직접 찾아가 보니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KIA 선수 몇몇이 모여 젊은 여자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

◇프로야구 중간순위 (25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도루	병살	실책	타율	방어율
1	S K	35	25	5	0.583	0	69	45	52	0.256	3.33
2	두산	35	28	1	0.556	1.5	75	53	41	0.260	3.43
3	한화	32	28	2	0.533	3	27	68	35	0.253	3.46
4	현대	31	31	0	0.500	5	19	58	51	0.276	4.04
5	삼성	29	30	3	0.492	5.5	64	44	39	0.239	3.30
6	LG	29	31	2	0.483	6	56	49	41	0.266	4.53
7	롯데	29	32	2	0.475	6.5	32	39	51	0.267	3.83
8	KIA	25	40	1	0.385	12.5	26	61	44	0.250	4.27

"류현진 선발, 무조건 졌네" 선수들 패배의식 팽배

주전 부상·부진...1·2군 오르락 내리락 집중력 '뚝'

병살타(61개) 2위·실책(44개) 4위...공·수 무기력

둘에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팀이 한달째 끝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서정환 감독도 올 시즌 도중 "선수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졌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상병동으로 전락한 투·타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도 심각하다. 투수중엔 이대진과 전병두, 강철민, 장문서 등이 2군에서 맴돌고 있고, 타선에선 홍세완, 최희섭, 이용규 등이 아프다. 여기에 이종범과 김중국, 이재주 등도 성적 부진을 이유로 1, 2군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을 대신해 신인들이 대거 기용되다보니 실책도 속출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3일 잠실 두산전만 하더라도 2-1로 앞선 3회 2사 3루서 3루수의 송구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했고, 결국 2-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대인 병살과 잔루도 단연 수위를 달린다. 병살은 61개로 한화(68) 다음으로 많고, 잔루는 507개로 8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500개를 넘었다.

근기가 부족한 KIA의 현주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팬들도 "옛날엔 호락호락 지지 않았다. 지더라도 다음엔 화끈하게 이길 것이라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KIA의 무기력한 플레이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4일 7연패의 부진을 겨우 끊은 KIA는 이번 주 대전에서 한화와, 주말에는 광주에서 LG와 경기를 갖는다.

폭발적인 중심타선을 자랑하는 한화와의 주중 3연전이 일단 부담스럽다. 또 다시 연패를 당한다면 올 시즌 4강 진출의 꿈을 그냥 접어야 할 위급 상황이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26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 등판하는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화려한 부활을 바랄 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올스타 출전 눈앞...팬투표 중간집계 1위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한국 프로야구를 거친 선수 중 처음으로 팬 선정 일 본프로야구 올스타 출전을 눈 앞에 뒀다.

이승엽은 25일 일본야구기구(NPB)가 발표한 팬 투표 중간 발표 최종 결과 센트럴리그 1루수 부문에서 32만5천96표를 얻어 구리하라 겐타(히로시마·30만4천505표), 타이론 우즈(추치바·29만2천458표)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를 24일 마감한 NPB는 이날 소인까지 찍힌 엽서 집계를 합쳐 팬 선정 양 리그 포지션별 올스타를 7월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센트럴리그에서는 1루수와 외야수가 각 축을 벌이고 있는데 엽서 집계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승엽은 한국프로야구 출신 선수를 달렸다.

선수로는 처음으로 일본프로야구 올스타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그동안 이승엽을 필두로 선동열 삼성 감독, 조성민, 구대성(이상 한화) 등 한국 야구 출신 선수는 모두 감독 추천으로 별들의 무대를 밟았다.

희망적인 것은 당시에는 팬 투표 중간집계 최종 발표에서 모두 2위에 머물러 엽서 집계를 포함한 마지막 발표 때 역전이 힘들었으나 올해는 2위와 2만표 이상 표차를 벌리며 선두를 고수했기에 팬이 뽑은 올스타에 등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범 올림픽야구대표 탈락

'바람의 아들' 이종범(KIA)이 2군행에 이어 국가대표팀에서도 탈락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에 나갈 야구 국가대표 2차 예비 엔트리에서 문동환(한화), 이종범 등 4명이 빠지고 대신 정민철(한화) 등 3명이 새로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대표팀 2차 예비엔트리 54명을 발표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아깝다! 1.5m 퍼팅

김인경, 생애 첫 우승 앞두고 18번홀 파퍼트 실패

오초아와 연장 접전 끝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러

■ 웨그먼스 LPGA 최종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던 19세의 새내기 김인경(19)이 1.5m 퍼팅에 울고 말았다.

김인경은 25일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골프장(파72·6천32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18번홀(파4) 파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우승컵을 내줬다.

오초아에 1타 뒤진 채 나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친 김인경은 1타를 잃은 오초아와 같은 8언더파 280타로 4라운드를 마쳐 역전승을 기대했으나 연장 두번째홀에서 파세 이브를 하지 못해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 '톱10' 입상이 단 한번 뿐이던 신인으로 세계랭킹 1위이자 상금랭킹 1위 오초아를 상대로 연장까지 벌여 준우승을 차지하며 깜짝 스타로 떠올랐지만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는 18번홀이었다.

18번홀에서 치러진 첫번째 연장전에서 나란히 파를 기록한 김인경과 오초아는 10번홀(파4)로 장수를 옮겨 두번째 연장전에 나섰지만 김인경에게는 불운이 이어졌다.

드라이버로 친 티샷은 오른쪽으로 밀려 러프에 떨어져 그린을 직접 공략할 수 없었고 세번째샷은 핀을 3m나 지나쳤다.

오초아 역시 티샷이 오른쪽 숲으로 날아갔으나 카트 도로를 타고 굴러 그린에 흰히 보이는 위치에 멈춰섰다. 두번째샷이 그린에 못미쳤던 오초아는 60cm 거리에 붙어 파를 지켰고 김인경의 먼 거리 파퍼트는 홀을 외면했다.

지금까지 4차례 연장전을 치러 모두 졌던 오초아는 '연장 필패'의 징크스를 벗어던지며 시즌 세번째 우승컵을 차지 들었다.

아쉽게는 김미현(30·KTF)도 김인경에 못지 않았다. 김미현은 3위(7언더파 281타)를 차지해 이 대회에서 다섯번째 '톱10'에 올랐지만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 장정(27·기업은행)은 공동5위(5언더파 283타)로 대회를 마쳐 디펜딩 챔피언의 체면을 차렸다.



김인경이 25일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웨그먼스 최종 라운드 7번홀에서 버디퍼트를 놓치며 아쉬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최선 다했기에 후회 없어요"

■ 김인경 준우승 소감

로 떠올랐다.

올해 LPGA 무대에 데뷔한 김인경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비거리 280야드에 이르는 드라이버샷과 자신에 찬 경기 운영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골프팬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역전과 재역전이 이어진 접전 속에 18번홀(파4)의 보기는 김인경에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김인경은 이날 최종 라운드 3홀을 남기고 오초아에 3타를 앞서고 있었지만 18번홀에서 1.5m짜리 파퍼트가 홀을 돌아와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김인경은 "오늘 마지막 3홀까지만 버티고 다짐했는데 18번홀과 17번홀에서 버디 찬스를 놓쳤다. 18번홀에서는 좀더 생각을 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다"고 아쉬워 했다.

김인경은 파퍼트를 놓친 데 대해 "내리막 경사였는데 좀 더 강하게 쳤어야 했다. 오른쪽을 보고 쳤는데 그렇게 확 휘면서 돌아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쉽게 끝날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게 된 김인경은 "연장전을 생각하지 못해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 당황스러웠다. 연장전을 생각하고 계획을 짰던 오초아에게 결국 기회를 준 셈이다"고 아쉬워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5월에 열린 코닝 클래식에서 공동 4위에 올랐던 김인경은 웨그먼스 LPGA에서 생애 첫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이날의 뼈아픈 실수를 교훈 삼아 28일 밤 개막하는 US여자오픈에서 달린 모습으로 필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19세의 애민 소녀 김인경이 웨그먼스 LPGA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새로운 에비스타

나상욱 9위...시즌 세번째 '톱 10'

■ PGA 트래블러스챔피언십 최종

나상욱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롤랜드의 리버하이랜드TPC(파70·6천82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73타로 공동9위를 차지했다.

4월 버라이즌헤리티지 공동4위와 지난 달 크라운플래저인비테이셔널 공동7위에 이어 시즌 세번째 '톱10' 진입.

15만6천달러의 상금을 보낸 나상욱은 상금랭킹을 지난 주 107위에서 82위(64만1천610달러)로 끌어 올리며 다음 시즌 투어 카드 확보의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2004년 켈리파인스플를 통해 2005년 데뷔한 나상욱은 지난해는 손가락 골절상 탓에 '병가'를 내 올해 투어 카드를 지켰다. 우승컵은 헨리 메이헌(미국)에게 돌아갔다.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시즌 세 번째 '톱10'에 입상, 내년 투어 카드 확보에 녹색 신호등을 켰다.